

한국 詠史樂府에 나타난 對百濟史 認識考*

李 東 宰**

<目 次>

I. 서론	IV. 백제 멸망에 대한 인식
II. 백제사 관련 시 현황	V. 백제사 인물에 대한 인식
III.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	VI.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한국 詠史樂府에 수록된 백제사 관련 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작가들의 백제사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백제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가를 살펴보는 데 일조하였다.

조선후기에 지어진 영사악부는 ‘海東樂府’, ‘東國樂府’, ‘箕東樂府’ 등으로 그 명칭이 다르지만, 모두 우리나라 역사서의 기록을 재해석한 시로서 작가들의 역사인식이 드러나 있다.

한국 영사악부에 수록된 시 가운데 백제사 관련 시는 38수이고, 고구려 관련 시는 41수이며, 신라와 관련된 시가 313수로 백제사와 관련된 소재는 신라의 것보다 1/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 또한 시의 내용은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한 시가 7수이고, 백제의 패망과 관련된 시는 19수이며, 백제사 관련 인물을 褒貶한 시는 8수이다.

한국 영사악부에 백제사 관련 내용이 적은 것은 이를 지은 작가들이 백제사와 관련된 전설이나 전승된 문화, 노래 등에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백제사와 관련된 인식은 고려조에 기록된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일연의 『삼국유사』의 기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작

* 이 논문은 2016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公州大學校 漢文教育科 教授 / leedj@kongju.ac.kr

가에 따라 인식의 범위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백제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첫째, 영사악부의 작가들은 溫祚의 백제 건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마한의 왕인 箕準이 온조에게 인정을 베풀어 땅을 내주어 살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멸망시킨 것은 ‘不仁’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正統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하여 온조의 백제 건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영사악부를 지은 작가들은 백제 패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자왕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학규는 백제 멸망의 책임은 역대 임금들의 荒淫無道와 귀족들 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인한 인재 등용의 실패, 여기에 더하여 잦은 왕권의 다툼이 쌓여서 생긴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영사악부의 작가들은 都彌부인과 成忠에 대해 貞節과 忠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 사회에 정절을 지키는 婦道를 널리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그러나 福信과 扶餘隆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들은 복신이 사육에 사로잡혀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백제부흥운동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부여융은 한 나라의 태자로서 망한 나라를 되찾겠다는 국권회복의 의지가 없고 일신의 安逸만을 생각하는 기생충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주제어】 百濟史, 백제의 건국, 백제의 패망, 도미부인, 성충, 福信, 義子王

I. 서론

조선후기에 지어진 詠史樂府는 그 명칭이 ‘海東樂府’, ‘東國樂府’, ‘箕東樂府’ 등으로 서로 다르지만, 영사악부의 소재가 된 史話는 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등에서 소재를 취하여 지은 詠史樂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사악부는 史書의 기록을 재해석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영사시는 과거의 역사를 소재로 한 시이지만 작가의 독서 등,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관적인 정서, 즉 역사관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

다. 인식의 기저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작가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살았는가,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 등은 작가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영사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과거의 역사를 追體驗化한 것으로, 작자의 인생이나 가치관, 철학, 학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한국영사악부에 수록된 백제사 관련 시들은 영사악부를 지은 문인들의 對百濟史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영사악부에 수용된 백제사 관련 시는 38수에 불과하다. 이는 고구려사 관련 시 41수, 신라 관련 시 313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시의 소재도 백제 패망과 관련된 시가 19수로 절반을 넘는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史書에 백제사 관련 기록이 적고 入傳된 인물이 적은 것에서 기인하며, 영사악부를 지은 인물들이 백제의 遺墟地 출신이거나 이곳에 세거를 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제사 관련 설화나 전승된 민요, 풍속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영사악부 작가들의 對百濟史 인식은 작가가 살았던 당대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바라본 시각이다. 그러므로 영사악부를 지은 문인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성리학적 사유를 기본으로 하여 작가 개인의 지적이력과 삶의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의 백제사 인식은 유가의 역사관인 감계주의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저로 하여 여기에 작가들의 지적 체험과 작가가 추구하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이상향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18세기 이후의 문인들이 가졌던 백제사에 대한 이해의 단면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문인들이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백제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그 이전의 시기의 문인들의 역사관과 차별성이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현재까지 영사악부에 나타난 백제사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작품이 간간히 분석되었을 뿐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없다.¹⁾ 따라서 본고는 한국 영사악부에 수록된 백제사 관련 시의 현

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사관련 시의 내용을 첫째,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 둘째, 백제 패망에 관한 인식, 셋째, 백제사 인물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이들의 對百濟史 인식의 단면을 살펴보아서 백제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백제사 관련 시 현황

조선시대 최초로 역사를 소재로 한 악부시는 조선 성종 연간에 주로 활동하며 신진사류의 종장의 역할을 하였던 金宗直(1431~1492)이 신라의 역사를 소재로 하여 읊은 「東都樂府」 7편이 라고 할 수 있다.²⁾ 이후 인조연간에 주로 활동했던 沈光世(1577~1624)가 고조선에서부터 자신이 살았던 당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44편으로 읊어서 ‘海東樂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영사악부의 효시이다. 그 이후 주로 星湖 李瀼을 비롯한 남인계 실학과 문인들이 ‘東國樂府’나 ‘海東樂府’라 칭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재로 한 악부를 많이 지었다.

다음의 <표-1>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재로 한 악부를 정리한 표이다.³⁾

-
- 1) 이에 관련된 논문은 김영숙의 『한국영사악부연구』, 신장섭의 「金壽民의 箕東樂府 研究」, 석진주의 「『海東樂府』를 통해 본 李福休의 현실인식」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백제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아니고, 논지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 백제사 관련 시 몇 수가 분석되었다.
 - 2) 김종직의 「동도악부」를 李衡祥이 차운하여 「次佔畢齋東都樂府」 7편이 있고, 이어 최현달의 「次佔畢齋集中韻」 6편이 있으며, 남극관의 「續東都樂府」 7편 등이 있다.
 - 3) <표-1>은 김영숙의 『한국영사악부연구』 p.33의 도표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작가	작품집 (편수)	시대별 작품 분포(편 수)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沈光世	海東樂府 (44)	借地恨 (1)	-	借地恨 (3)	金櫛引 (12)	種稜田 (23)	入山哭 (8)
李瀼	海東樂府 (120)	-	匕稜石 (5)	借地歎 (6)	兜率歌 (29)	種稜田 (44)	臨江曲 (36)
李福休	海東樂府 (260)	桓雄詞 (10)	柳花曲 (28)	十濟曲 (14)	閼英井 (95)	勸從衆 (53)	威和行 (60)
李學達	嶺南樂府 (68)	旗出邊 (6)	-	-	仇衡王 (34)	八關會 (27)	萬魚石 (1)
	海東樂府 (56)	借地恨 (2)	七嶺松 (4)	忿志城 (4)	大世葉 (6)	種稜田 (35)	剃髮主 (5)
임창택	海東樂府 (42)	檀君祠 (2)	柳花歌 (4)	成忠囚 (1)	嘉郎歌 (5)	城上拜 (30)	-
오광운	海東樂府 (28)	太白檀 (2)	朝天石 (3)	釣龍臺 (2)	聖母祠 (14)	絶影馬 (7)	-
李匡師	東國樂府 (30)	太白檀 (3)	朝天石 (3)	釣龍臺 (2)	聖母祠 (15)	絶影馬 (7)	-
이영익	東國樂府 (30)	太白檀 (3)	朝天石 (3)	釣龍臺 (2)	聖母祠 (15)	絶影馬 (7)	-
조종현	三史異蹟 (20)	檀下熊 (2)	斷劍合 (2)	-	居西干 (16)	-	-
김양근	東方古樂府 (12)	-	-	-	碓樂 (4)	伐谷烏 (8)	-
金壽民	箕東樂府 (385)	진단가 (5)	高句麗 謠 (10)	百濟歌 (3)	新羅曲 (23)	高麗曲 (33)	朝鮮歌 (311)
李裕元	海東樂府 (100)	箕子樂 (5)	高句麗 樂(1)	百濟樂 (1)	新羅樂 (18)	高麗樂 (40)	昭代樂 (36)
총 편수 : 1225		41	63	38	313	314	457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해동악부는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작가들의 정치적 성향도 沈光世와 李匡師, 이영익을 제외하고 李瀼을 위시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모두 정치권력에서 떨어진 남인계 실학자들이다.

沈光世는 서인계 문인으로 고향이 경상도 선산이며, 역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해동악부」序에서, 명나라 李東陽의 『西涯

樂府』를 참고하여 「해동악부」를 지어서 아동들에게 재미있게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⁴⁾ 심광세의 「해동악부」는 백제사를 소재로 한 시는 3수이고, 고구려와 관련된 시는 1수도 없으며, 신라와 관련된 시는 12수이다. 이는 백제사 관련 시가 신라를 소재로 한 시의 1/4에 불과하다.

李灑은 남인계 실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익은 「해동악부」 119편을 正史의 서술체제에 맞추어 지었다. 그가 지은 「해동악부」에는 고구려 관련 시 5수, 백제 관련 시 6수, 신라 관련 시 29수가 실려 있다. 이는 백제사에 관련된 소재로 지은 시가 신라와 관련된 시에 비해 1/5에 불과하다.

李福休(1729~1800)의 「해동악부」는 고구려 관련 시 28수, 백제 관련 시 14수, 신라 관련 시 95수가 실려 있다. 이는 백제와 관련된 편수가 고구려에 비해 1/2에 불과하고 신라에 비해 1/7에 불과하다.

李學達(1770~1835)의 「해동악부」에는 고구려 관련 시 4수, 백제 관련 시 4수, 신라 관련 시 6수가 실려 있다. 그러나 그는 「嶺南樂府」에서 신라의 역사를 소재로 한 시 34수를 더 지었기 때문에, 그의 백제 관련 시는 신라 관련 시에 비해 1/10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林昌澤(1682~1723)이 지은 「해동악부」에는 42수가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삼국에 관한 시가 10수이다. 그 10수 가운데 고구려 관련 시 4수, 백제 관련 시 1수, 신라 관련 시 5수로 백제에 관한 내용은 신라에 비해

4) 심광세의 自序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적에 너무 무관심함을 딱하게 생각하여, 明나라 李東陽의 『西涯樂府』를 참고하여, 그 樂府體 본떠서 이 글을 지었는데, 아동들의 교훈을 목적으로 했다 한다. 역사를 시로 읊은 이 책의 내용은 신라와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의 史實로부터 흥미가 있는 사건 44편을 뽑아서 싣고, 그것을 설명하는 해설을 詩序로 만들어 그 史實을 시로 읊었다고 하였다.(심광세, 『휴옹집』, 「해동악부」, 한국문집총간 84, p.348, 「序」, “偶讀西崖樂府 愛其辭旨剴切 引事比類 勸戒明白 能使人感發而興起 有補於初學爲多. 間閱東史 就其中可以贊詠鑑戒者 除出若干條 作爲歌詩. 名曰 海東樂府 以教兒輩 雖不敢自附於作者 聊以志纂述之梗槩云爾. 皇明紀元萬歷丁巳抄秋下澣 休翁序.”)

1/5에 불과하다.

吳光運(1689~1745)이 지은 「해동악부」는 28수인데, 그 가운데 삼국에 관한 시가 19수이다. 그 가운데 고구려 관련 시 3수, 백제 관련 시 2수, 신라 관련 시 14수로, 백제사 관련 시는 신라에 비해 1/7에 불과하다.

李匡師(1705~1777)의 「동국악부」는 30수인데, 그 가운데 고구려 관련 시 3수, 백제 관련 시 2수, 신라 관련 시 15수로, 백제에 관련된 시는 신라에 비해 1/8에 불과하고, 그의 아들인 李畝(1740~?)의 「동국악부」는 부친과 함께 귀양을 가서 아버지인 이광사의 시를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백제 관련 시는 신라 관련 시의 1/8에 불과하다.

金壽民(1734~1811)의 「箕東樂府」는 고구려 관련 시 10수, 백제 관련 시 3수, 신라 관련 시 23수로, 백제 관련 시는 신라관련 시에 비해 1/8에 불과하다.

조종현의 「삼사이적」에는 고구려 관련 시 2수, 신라 관련 시 16수 등을 지었으나 백제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음악에 관한 내용을 읊은 것은 김양근의 「동도고악부」에는 신라의 대악 등 4수를 지었지만 백제와 관련된 시는 1편도 없다. 이유원의 「해동악부」에는 고구려 관련 시 1수, 백제 관련 시 1수, 신라 관련 시 18수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지어진 해동악부는 대부분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며, 백제사와 관련된 소재는 신라의 것보다 1/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 이는 영사악부를 지은 작가가 이광사와 이영익을 제외하고 성호 이익과 같은 近畿南人이거나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실학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백제사와 관련된 전설이나 전승된 문화, 노래 등에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백제사와 관련된 인식은 고려조에 기록된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일연의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차용하여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⁵⁾

5) 우리나라 영사악부를 지은 문인들은 주로 近畿 남인학자로인 이익과 그의 영향을 받은 문인들로서, 이들은 신라를 정통으로 보는 사관을 가졌고,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관심이

다음으로 해동악부에서 시화한 백제사 관련 악부시의 현황을 살펴본다. 아래의 <표-2>는 앞에서 살펴본 작가들의 백제사 관련 내용을 소재한 시를 정리한 표이다.

작가	작품집(수)	백제 관련 악부시 제목	비고
沈光世	海東樂府(3)	借地恨, 再請妻, 落花巖	
李瀼	해동악부(6)	借地歎, 周勤歌, 井邑詞, 成忠歎, 同月輪, 落花巖	
李福休	海東樂府(14)	十濟曲, 周勤歌, 鴻雁歌, 石槲歎, 都彌妻, 大豆城, 加林歎, 端門泣, 薯童謠, 大王浦, 月輪行, 霜岑嘆, 寄生嘆	
李學逵	海東樂府(4)	忿志城, 自溫臺, 落花巖, 老龍姑	
林昌澤	海東樂府(1)	成忠囚	
吳光雲	海東樂府(2)	釣龍臺, 落花巖	
李匡師	東國樂府(2)	釣龍臺, 落花巖	
李令翊	東國樂府(2)	釣龍臺, 落花巖	
金壽民	기동악부(3)	百濟歌, 都彌妻, 望海亭	黃倡舞, 道琳謠
李裕元	해동악부(1)	百濟樂	
총 편수 : 40		38	2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심광세가 지은 「借地恨」은 기자조선의 왕인箕準이 衛滿에게 땅을 내주었다가 도리어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南遷하여 세운 馬韓을 온조에게 땅을 내주었다가 또 다시 빼앗긴 사실을 시화한 것이고, 「再請妻」는 개루왕이 백성의 부인인 도미의 처를 권력을 남용하여 겁탈하려고 한 惡政을 비판한 것이며, 「落花巖」은 의자왕의 황음무도한 행위로 인한 국가의 멸망에 대한 감계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익은 백제사와 관련된 악부시 6편을 지었다. 「借地歎」은 馬韓王 箕準이 부여에서 남하한 온조에게 땅을 내주어 살게 했으나, 온조가 도리어 마한을 멸망시킨 것은 ‘不仁’이므로 백제의 건국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시이고, 「周勤歌」는 마한의 장군인 周勤이 기병하여 백제의 우곡성을 공격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이는 ‘叛’이 아니고 ‘忠’이라는 하여 백

많았지만, 백제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의 건국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井邑詞」는 옛 백제 지역이었던 정읍에서 전해오는 설화를 시화한 것이고, 「成忠歎」은 성충과 같은 충신이 있어도 임금이 어질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여, 성충의 충을 포양하기보다는 임금의 현덕이 더 중요함을 경계한 내용이며, 「同月輪」은 백제가 망하기 전 망할 조짐을 보여준 설화를 시화한 것이고, 「落花巖」은 의자왕의 황음무도한 행위로 인해 나라가 망하자 절벽에서 투신한 궁녀들을 통해 역사의 감계를 삼은 작품이다.

이복휴의 「十濟曲」은 온조왕의 백제 건국에 관한 내용이고, 「周勤歌」는 백제에 의해 망한 마한의 장군인 주근을 영웅화하여 백제 건국의 정당성을 비판한 작품이며, 「鴻雁歌」는 백제의 영토 범위를 시화한 작품이다. 「石槲歎」은 개로왕의 무능으로 고구려의 첩자인 道琳의 反間計에 넘어가서 영토를 상실한 것을 비판한 작품이고, 「都彌妻」는 도미부인의 정절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私慾을 채우려는 개루왕을 비난하는 내용이며, 「大豆城」은 三斤王의 불의를 비판한 내용이다. 「加林歎」은 동성왕의 遊樂으로 인한 국정의 난맥상과 苜加(?~?)의 모반을 시화한 것이고, 「端門泣」은 성왕의 외교실책을 비판한 내용이며, 「薯童謠」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간의 사랑보다는 지나친 불사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한 작품이다. 「大王浦」는 무왕의 지모의 부족과 유락을 비판한 내용이고, 「月輪行」은 의자왕의 황음무도로 인한 민심의 이반에 따른 天災와 여러 가지 조짐을 읊었으며, 「霜岑嘆」은 백제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福信이 사육으로 인한 백제부흥운동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寄生歎」은 의자왕의 아들로 백제의 도독으로 임명된 夫餘隆의 국가 재건에 대한 의지부족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학규의 「忿恚城」은 북부여에서 온조와 함께 남하한 沸流가 지금의 인천지역인 미추홀에 가서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려다 망한 사실을 읊은 시이고, 「自溫臺」는 백제 역대 왕들의 황음을 비판한 시이며, 「落花巖」은 백제가 망한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당대 아름답게 핀 꽃이 궁녀들의 피라고 하여 우회적으로 의자왕을 비판한 시이고, 「老龍

姑」는 조룡대의 전설을 믿을 수 없는 허구라고 비판한 시이다.

임창택은 「成忠囚」 1편을 지었는데, 「成忠囚」는 화자가 성충이 되어 1인칭 시점에서 극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의자왕의 무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광운은 「釣龍臺」와 「落花巖」 등 2수를 지었다. 「釣龍臺」는 임금의 현덕과 天命을 다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경계한 내용이고, 「落花巖」은 작가 자신이 궁녀가 된 1인칭 시점에서 백제가 망한 이유와 낙화암의 유래를 시화한 시이다.

이광사·이영익의 「釣龍臺」는 용의 신령스러움을 믿기 보다는 왕들의 황음무도를 경계한 내용이고, 「落花巖」은 백제의 의자왕이 여색에 취해 국정을 돌보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경계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수민의 「기동악부」에서 백제사와 관련된 시는 「百濟歌」, 「都彌妻」, 「望海亭」 등 3수이나 「百濟歌」 다음에 「都彌妻」를 두고, 이어 「黃倡舞」와 「道琳謠」를 배치하고 마지막에 「望海亭」을 두고 있다. 이는 「黃倡舞」의 주인공인 황창이 신라인이지만 백제와 관련이 있고, 「道琳謠」의 주인공은 고구려 승인 도림이지만 백제의 역사에서 웅진 천도의 직접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어서 백제 관련항에 넣은 것이다. 김수민의 「百濟歌」는 백제의 건국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을 비판 없이 그대로 시화한 것이고, 「都彌妻」는 도미부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삼국사기의 내용을 시로서 轉載한 것이며, 「望海亭」은 백제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왕의 음락과 이에 따른 여러 조짐, 그리고 후회의 내용을 제3자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영사악부에서 백제사 관련 소재는 주로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즉 낙화암을 소재로 한 시는 6수이고, 조룡대와 관련된 시는 3수이며, 망해정과 관련된 시는 3수, 성충과 관련된 시는 3수, 백제의 멸망의 조짐을 보여주는 월륜행 2수,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시 1수, 夫餘隆과 관련된 시 1수 등 절반을 넘는다. 또한 백제의 건국과 관

련된 내용을 소재로 한 시는 심광세의 「借地恨」 등 6수가 있다. 그리고 도미와 관련된 시는 3수가 있으며, 역대 왕들의 무능과 淫樂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과 외침을 당한 것을 소재로 한 시는 이복휴의 「석곽탄」 등 4수가 있다. 이는 특정한 소재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된 것은 작가의 성향과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백제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Ⅲ. 百濟 건국에 대한 인식

조선 후기의 영사악부에서 백제사 관련 시는 38수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시는 沈光世의 「借地恨」, 李瀼의 「借地歎」과 「周勤歌」가 있고, 李福休의 「十濟曲」, 「周勤歌」, 「鴻雁歌」 등 3수가 있으며, 金壽民의 「什濟曲」 1수 등 7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鴻雁歌」를 제외한 6수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서 영사악부를 지은 작가들의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심광세의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심광세의 「借地恨」 시이다.

殷墟麥已秀	은나라 옛터엔 보리가 이미 무성하게 자랐고
海東敷八條	해동 땅에는 8조의 법이 널리 시행되었네.
禮讓以爲俗	예의와 양보는 이미 풍속이 되었고
傳祚千年遙	제위를 이어온 지 아득히 천년이나 되었네.
燕地亡人適樂國	연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왔고
東明王子窮來托	동명왕의 자손도 궁지에 몰려 찾아와 의탁하였네.
君王不嫌二主容	군왕께서 두 우두머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錫之土田爲附庸	먹고 살 땅을 내주고 부용으로 삼았네.
古來養虎多自患	예로부터 호랑이를 기르면 본디 우환이 많은 것
逼逐并吞讎在眼	눈앞에서 뒤집어져 쫓겨나고 병탄을 당했네.

前借衛	먼저는 위나라에게 빌려주고
後借濟	뒤에는 백제에게 빌려주었네.
仁賢之後竟陵替	인현의 후예들은 끝내 참담하게 멸망하고
遺恨當年費虛惠 ⁶⁾	그 해에 쓸모없는 은혜를 베푼 것이 한으로 남네.

이 시는 箕子朝鮮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주로 백제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시화한 악부시이다. 시의 구성은 제목, 史話, 原詩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락은 1구~4구로 기자조선에 관한 내용이다. 箕子朝鮮은 箕子が 殷나라가 망하자 동쪽으로 고조선 땅에 와서 세운 나라로, 8조목의 법을 시행하여서 나라가 안정되게 1000여년을 이어져 온 나라였다.

2단락은 5구~8구로 箕準이 仁情을 베풀어 衛滿과 濫祚를 받아들였다가 도리어 나라를 잃은 역사적인 사실을 시화하고 있다. 기자조선의 왕인 기준은 燕나라 망명객인 衛滿에게 100여리 땅을 내주어 살게 하였다. 후에 위만은 자신의 세력을 키운 후에 왕인 기준을 몰아내자, 기준은 남으로 천도하여 馬韓을 세웠다. 후에 북부여에서 남으로 내려온 온조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다시 땅을 내주어 살게 하였다가, 도리어 온조에게 나라를 잃게 되었다.

3단락은 9구~14구로 화자의 평가이다. 화자는 箕準이 인정을 베풀어 처음에는 위만에게 속아 나라를 빼앗기고 南遷하였으며, 뒤에는 백제의 온조에게 나라를 잃어 仁賢으로 추앙받으며 천년이나 이어온 사직을 잃은 것이 한으로 남는다고 하고 있다.

작가는 기준이 궁지에 몰린 온조에게 仁情을 베풀어 잘 살게 하였는데도, 온조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마한을 멸망시킨 것은 ‘不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온조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백제를 세운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다음은 남인계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

6) 沈光世, 『休翁集』 권3,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84, p.348, 「借地恨」.

본다. 다음의 시는 이익의 「借地歎」이다.

椎髻東渡十濟南	몽치 상투는 동으로 오고 십제는 남으로 가서
衛氏故智溫王同	위씨의 옛날 계책을 온조도 동일하게 썼네.
借地非難奪國易	땅 빌리기 어렵잖고 나라 빼앗기 쉬웠으니
仁賢苗裔太盲聾	현인의 후손들 너무도 눈멀고 귀먹었었네.
尾箕提封若金甌	尾宿와箕宿의 강토는 금사발과 같았는데
柰何割棄遺蠻戎	어찌하여 땅을 떼어 오랑캐에게 주었던가.
流離一隅亦偏安	한 모퉁이로 흘러온 것은 일시적인 안일이지만
東方正統期始終	동방의 정통이 영원하기를 기대했네.
前車不戒悔何及	전철을 경계삼지 못했으니 후회한들 무엇하리?
金馬山前王業窟	금마산 앞에서 왕업이 다하였네.
虛仁頗似宋茲父	헛된 인자함은 자못 송 양공과 같았지만
薄心不是吳老公	야박한 마음은 오 노공이 아니던가?
周勤將軍獨秉節	주근 장군이 홀로 절개를 지켰는데
史不特書嗟爾矇	사관이 크게 기록하지 않았으니 눈도 참 어두웠네.
君不見	그대는 못 보았나.
弁辰鄰東界	변한과 진한이 동쪽에 이웃하여
名山限隔亦同風 ⁷⁾	명산이 막혔어도 또한 풍속이 같았음을

이 시는 馬韓王 箕準이 백제의 시조인 온조에게 인정을 베풀다가 도리어 온조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시화한 작품이다. 이 시의 史話에 의하면, 온조가 부여에서 남으로 내려왔을 때, 마한왕 箕準이 자신의 땅을 내주어 온조의 무리들에게 살도록 허락하였다. 그 후 온조의 세력은 더욱 커지고 마한의 힘이 약해지자, 온조왕 26년 마한을 기습하여 27년 마한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⁸⁾

7) 李瀼, 『星湖全集』 권7,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198, p.171, 「借地歎」. 이 시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원문서비스의 번역문을 인용하였으며, 필자의 견해와 다른 곳은 수정하였다. 이하 李瀼의 시는 모두 이와 같이 인용하였다.
 8) 李瀼, 『星湖全集』 권7,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198, p.171, 「借地歎」, “百濟溫祚王二十四年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

이 시는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락은 1구~4구로 기자조선의 멸망과 마한의 멸망을 서술하고 있다. 중국 衛나라 流民인 衛滿이 전란을 피해 기자조선 땅으로 들어오자, 기자조선의 왕인 箕準은 위만에게 인정을 베풀어 땅을 내주어 살게 하였으나, 훗날 이들에게 도리어 나라를 빼앗기고 남으로 천도하여 익산의 금마산에 馬韓을 세웠다.⁹⁾ 그러나 마한의 왕인 기준은 과거에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거울삼지 않고 다시 온조에게 자신의 땅을 떼어주었다가 또 온조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시의 2단락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箕準이 쓸모없는 인정을 베풀다가 도리어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설명과 우리나라의 정통이 마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5구의 ‘尾箕’는 28宿 가운데 동방을 가리키는 ‘尾宿’와 ‘箕宿’를 가리키며, ‘金甌’는 金城湯池와 같은 견고한 성을 말한다. 즉 기자조선은 동방에 위치하여 오래도록 튼튼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서 外侵으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조선의 왕인 기준이 위만에게 인정을 베풀었다가 나라를 잃고, 다시 백제의 온조에게 땅을 내어 주었다가 나라를 잃은 것은 宋襄之仁이라는 것이다.¹⁰⁾ 그리고 온조가 인정을 베풀 마한의 기준에게 의리를 저버리고 도리어 그 나라를 차지한 것은 梁나라와 무제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다.¹¹⁾ 이는

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遂壞其柵. 二十六年秋七月 王曰 馬韓漸弱 上下離心 其勢不能支 倘爲他所并則唇亡齒寒 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之 以免後艱. 冬十月王出師 陽言田獵 襲馬韓 遂并其國邑. 惟圓山·錦峴二城固守不下. 二十七年夏四月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 9) 李瀼, 『星湖先生全集』 권47, 「雜著」, 「三韓正統論」, 한국문집총간 199, p.363, “箕準避寇南遷 遂稱馬韓. 史云 準立二十餘年而陳項起 則馬韓之柵 又當漢興之際乎. 夫仁賢之化 實自箕子始 而後孫傳業不替 衛滿以欺詐屏逐之 準猶率其人南奔 開斥土疆 屬國五十餘 是則東方之正統不絕.”
- 10) 기준이 위만과 온조에게 베풀 인정은 중국의 전국시대 宋나라 襄公이 楚나라와의 전투에서 초나라가 戰列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 공격하자는 조언을, 이는 예의가 아니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초나라가 전열을 다 정비한 후 전투를 하다가 도리어 자신의 군대가 대패를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 11) 중국 남북조 시대 東魏의 侯景이 河南땅을 가지고 西魏에게 항복했다가 다시

백제의 온조가 마한을 멸망시킨 것은 왕과 신하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무너트린 행위라는 것이다.

시의 3단은 백제에 의해 망한 마한의 장군이었던 주근에 대한 칭송과 이를 기록하지 않은 史官의 잘못을 성토했고 있다. 그리고 백제에 의해 끊긴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을 마한의 이웃 나라인 辰韓과 弁韓[신라]이 마한의 풍속이 같은 것으로 보아 그 정통을 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사관이 기록하지 않은 주근의 이야기를 詩化하여 주근을 褒揚함으로써 백제 건국이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익은 고조선이 周나라의 문화를 箕子를 통하여 전수받았고 기자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밀려 남쪽으로 옮겨 마한을 세웠으므로, 馬韓이 그 정통을 이었다고 본 것이다.¹²⁾ 이익이 온조왕의 백제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그의 「周勤歌」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의 시는 이익의 「周勤歌」이다.

振古英雄張良倫	옛날에 이름 떨친 영웅 장량 같은 사람
報韓心如白日明	마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태양처럼 밝았네.
腰間劍氣拂天起	허리에 찬 칼 빼들고 하늘 떨치고 일어나
一旅先據牛谷城	한 무리 군사로 우곡성을 점거했네.
衛氏故智十濟強	위만의 옛 지략에다 온조가 강성하니
箕邦正統一朝傾	기자 나라의 정통이 하루아침에 기울었네.
離離禾黍故國愁	늘어진 벼와 기장에 옛 나라가 생각나서
山河誓心風悲鳴	산과 강에 맹서하니 바람도 슬피 울었네.
大事不成天意耳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리니
勿血義不汙賊兵	적병에게 더럽혀지지 않고 의롭게 자결했네.

배반하고 梁나라에 귀순하여 河南王에 봉해졌다. 그 후 양나라 군주인 武帝(蕭衍)는 東魏의 이간책에 속아 화친을 맺자, 侯景은 양나라 무제의 ‘야박함’을 핑계로 반란을 일으켰다.

12) 李漢, 『星湖僊說』 권2, 「天地門」, 「三韓金馬」, 한국문집총간 198, pp.69-70, “馬韓者指箕準也 本居句麗之地 後雖奔逃而南 指句麗爲馬韓 故地亦或宜然也. 百濟起於馬韓境內 馬韓所統五十餘國 原有伯濟國. 恐是始基于此地 後人 謂自十至伯者 妄矣. 馬韓都金馬郡.”

眯目蓬心誰氏子 티 든 눈에 막힌 마음 뉘 집의 아들인가
 但留青簡戮辱名 단지 역사책에 욕된 이름으로 남기었네.
 爾來一千五百年 그 뒤로 일천오백 년 세월이 지나도록
 冤氣上衝斗牛橫 원통한 기운이 솟아 두우성에 비껴 있네.
 洗滌箱篋不在我 상자 속 비방 씻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지만
 特筆書與開羣盲¹³⁾ 대서특필하여 봉사들의 눈을 열어 주리라.

이 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李灑이 마한의 왕인 기준이 온조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땅을 내주었다가, 훗날 도리어 온조에게 나라를 잃게 된 것을 읊은 「차지탄」의 끝부분에 “주근 장군이 홀로 절개를 지켰는데 (周勤將軍獨秉節), 사관이 크게 기록하지 않았으니 눈도 참 어두웠네(史不特書嗟爾矇)”라고 하여, 주근을 褒揚하기 위해 다시 이를 시화한 시이다.

이 시의 史話에 의하면 “마한의 옛 장수인 주근이 군사를 일으켜 우곡성을 함락하자 온조왕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공격하였다. 이에 주근이 자결하자 그 시체의 허리를 베고, 여기에 더하여 처자식을 모두 죽였다”¹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온조왕의 ‘不仁’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즉 죽은 주근의 시체를 토막을 내고, 다시 그 가족까지 몰살한 것은 차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不仁’이라는 것이다.

이 시는 3단락으로 구성하여 주근의 포양하고 이어 자신이 「주근가」를 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단락은 1구~4구로, 주근이 자신의 조국인 馬韓을 되찾으려고 떨쳐 일어나 우곡성을 공격한 것은 의로운 행위로 張良처럼 후세에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賞讚하고 있다.

2단락은 5구~8구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기자조선이 위만의 농간으로 망하고, 이후 남쪽으로 천도하여 세운 마한은 온조에 의해 망하

13) 李灑, 『星湖全集』 권7,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198, p.172, 「周勤歌」.

14) 李灑, 『星湖全集』 권7,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198, p.172, 「周勤歌」, “百濟始祖三十四年冬十月 馬韓舊將周勤起兵據百濟牛谷城. 王帥兵五千討之. 周勤自經腰斬其屍 并殺妻子.”

게 되어 정통성을 잃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離離禾黍故國愁，山河誓心風悲鳴”라고 하여 자신이 당시의 주근이 되어 忠奮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離離禾黍’는 周나라의 大夫가 옛 도읍지였던 鎬京을 지나며 西周의 종묘와 궁실 터가 이미 기장 밭으로 변한 것을 보고 슬픈 마음을 읊은 것인데,¹⁵⁾ 이는 주근이 온조에게 망한 옛 마한을 그리워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山河誓心’은 漢나라 고조가 개국공신들에게 列侯를 封爵할 때 맹세하기를 “황하가 말라 띠처럼 되고 태산이 닳아 숫돌처럼 되더라도 나라는 영원히 평안하여 복록이 먼 후손에게까지 미치리라.”¹⁶⁾라고 한 것을 用事하여, 주근이 자신의 조국인 마한을 망하게 한 온조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다짐이다.

시의 3단락은 다시 주근이 망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擧兵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한 사실과 역사의 잘못된 기록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서 이를 정당하게 기록하지 않고, 도리어 “반란[叛]을 일으켰다”라고 기록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주근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이를 일깨우기 위해 시화한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작가는 주근이 군사를 일으킨 행위는 漢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여 留侯에 책봉되고, 文成公의 시호를 받은 장량과 같이 포양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익은 「三韓正統論」에서 “마한의 역사를 쓸 때는 춘추필법에 따라, 마한은 곧 동국의 正統이다. 그러므로 백제가 몰래 습격한 사실은 ‘百濟入寇’로, 원산·금현성의 항복은 ‘二城陷’으로, 마한이 망할 때 舊將 周勤이 죽었다는 표현은 ‘마한구장 주근이 우곡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바쳤다.’로 써야 한다.”¹⁷⁾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익

15) 『詩經』, 「黍離」, “彼黍離離 彼稷之苗 行邁靡靡 中心搖搖.”

16) 『史記』 권18, 「高祖功臣侯年表」, “使河如帶 泰山若厲. 國以永寧 爰及苗裔.”

17) 李瀼, 『星湖先生全集』 권47, 「雜著」, 「三韓正統論」, 한국문집총간 199, p.363,

이 온조의 백제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온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마한의 옛 장수였던 주근을 포양하여 간접적으로 백제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다.

다음은 이익의 조카로서 남인계 문인인 이복휴(1729~1800)의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주지하듯이 이복휴는 성호 사단의 일원으로 이익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이복휴가 지은 「十濟曲」이다.

卒本受堯禪	졸본은 요임금이 왕위를 선양한 것을 본받았고
美蚌生珠子	아름다운 말조개가 구슬을 낳았네.
宮中曉罷壓紐戲	궁중에선 새벽에 당벽의 놀이도 끝났건만
二龍難容一津水	두 마리의 용은 한 나루의 물에 수용하기 어려워라
鶴鶴翩翩南渡漢	형제는 날개를 펴고 남으로 한수를 건넜네.
漢水以南多王氣	한강 이남에도 왕기가 성하여
多王氣季所居	왕기가 성하여 말세까지 살만한 곳으로 여겼네.
乃伯影搖獨何止	형은 이곳을 내던지고 홀로 어느 곳에 정착했나?
柞城荒山路初開	참나무 무성한 거친 땅을 처음으로 개척하니
謳歌半月人如市	반월같은 땅이라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칭송했네.
莫說彌鄒多海障	미추홀엔 바다의 독기가 많다고 말하지 말라.
歸對島千浪羞死	돌아가 마주한 섬엔 천 길 파도에 부끄러워 죽었지요.
由來樹國先樹德	원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덕을 세워야 하는 것
豈必都城爲可恃 ¹⁸⁾	어찌 도성을 세우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는가?

이 시는 ‘제목, 史話, 原詩, 史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는 내용상 4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락은 1구~5구로 주몽의 큰 아들인 類利와 졸본에서 낳은 沸流·溫祚 간의 권력다툼을 시화하고 있다. 1구는 주몽이

“余故曰 馬韓者 卽東國之正統也. 其百濟陰師襲之則當書曰 百濟入寇 其圓山錦峴之降則當書曰 二城陷 馬韓亡 周勤之死則當書曰 馬韓舊將周勤起兵據牛谷城 不克死之.”

18)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230-231, 「十濟曲」.

졸본의 왕으로부터 禪位를 받아서 왕이 된 것을 말하고, 2구는 주몽의 탄생설화로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부인이 훗날 주몽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美蚌’으로 묘사하였고, 영웅인 주몽을 ‘珠子’로 표현하였다. 3구는 왕세자 자리를 가지고 유리와 비류·온조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다. ‘壓紐戲’는 왕세자를 고르기 위해 왕자들끼리 璧玉을 먼저 발견하는 경기이다. 4구와 5구는 왕세자로 책봉되지 못한 비류·온조가 남으로 내려오는 장면이다. 기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동부여의 왕인 대소의 위협을 피해 졸본으로 달아나서 졸본의 둘째 공주와 결혼하여 沸流와 溫祚를 낳았고, 졸본의 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아 왕이 되었다. 주몽에게는 졸본에 오기 전에 부인 禮氏 사이에 類利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리가 동부여의 대소로부터 핍박을 받아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아버지를 찾아와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¹⁹⁾

2단락은 비류와 온조가 남으로 내려와서 온조는 한수(한강)유역이 왕기가 성하여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고, 이곳에 정착하였지만, 형인 비류는 미추홀(인천)로 이동하여 정착하였으나 땅이 황무지이고 거기에 바다의 瘴氣까지 있어서 정착할 수 없는 땅을 선택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결하였다.²⁰⁾

3단락은 13구와 14구로 작자인 이복휴의 평가이다. 작자는 나라를 세우는 것은 덕을 쌓아서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단지 웅장한 도성을 쌓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
- 19)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229-230, 「十濟曲」, “初 東明王至卒本 其王無子 只有三女. 見朱蒙奇之 以第二女妻之. 未幾 王薨 東明嗣位 生二子. 長曰 沸流 次曰 溫祚. 及類利爲太子 二人恐不容 遂烏干烏黎等十人南行 百姓從之.”
- 20)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229-230, 「十濟曲」, “至漢山 登負兒峴 望可居處. 沸流欲處海濱 十臣諫曰 惟彼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喬岳 南望膏澤 西阻大海 天險地利兩得之矣 可以爲都.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 國號十濟. 沸流以彌鄒 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甚盛 慚悔而死. 其臣民皆歸慰禮 以百姓和悅 改號百濟 立始祖廟 祀東明王.”

비류가 나라를 잃은 것은 그가 도읍한 땅이 거칠고瘡氣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나라를 세우는 근간은 땅과 든든한 성이 아니라 덕을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복휴의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은 그가 지은 「周勤歌」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다음의 시는 이복휴의 「周勤歌」이다.

金馬墟生麥秀	금마 땅 옛터엔 보리만 자라고
東道主禍反構	동도주의 재앙에 도리어 엮였구나.
熊川老蠶日正肥	웅천의 늙은 누에는 날마다 살지어 가고
漢南春桑葉葉瘦	한남의 봄 뽕나무는 잎마다 희미해지네.
西江獵火焚林紅	서강엔 사냥불로 숲을 불태워 붉게 타고르고
宜陽喬木生淒風	의양의 교목엔 싸늘한 바람이 이네.
虎髯拔劍指蒼穹	용감한 무인은 칼을 빼어들고 창공을 가리키고
酒酣怒氣生長虹	술에 취한 노기에 긴 무지개가 생기네.
誓不與賊一天同	맹세하기를 적과는 한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나니
獨騎青驄踏夜陣	홀로 청충마를 타고 밤에 적진에 다다라서
奮臂擊賊賊反刃	팔뚝을 뻗어 올려 적을 쳤으나 도리어 베임을 당했네.
師直爲壯曲爲老	군대에선 곧은 것을 장하다고, 굽은 것을 노련하다고 하지만
汝雖得國何無信	너는 비록 나라를 얻었으나 어찌 믿음이 없는가?
牛谷城頭出日紅	우곡성 머리에 해가 붉게 떠오르고
此心與日照長空	이 마음은 저 태양과 함께 장공을 비추리니
何必較計成敗功	하필이면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여 따지겠는가?
功雖不成身是忠	공은 비록 이루지 못했으나 심신은 충을 행했으니
金家史筆愧董狐	김부식의 사필은 동호의 붓에 부끄러워라
翟義公然爲有窮 ²¹⁾	책의를 공공연히 궁지에 몰렸다고 하라.

이 시는 스승인 이익의 「주근가」와 같은 시각에서 지어진 시로, 제목, 史話, 原詩, 史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은 3단락으로 구성되

21)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231-232, 「周勤歌」.

어 있다. 1단락은 온조가 남으로 내려와 마한을 멸망시키고 백제를 세운 사실을 읊고 있다. 2구의 ‘東道主’는 ‘길을 안내하며 대접하는 주인의 역할을 맡는 사람’²²⁾이란 말로 마한의 箕準를 의미한다. 즉 기준이 온조에게 자신의 땅을 내주어 살게 하다가 도리어 나라를 잃게 된 재앙을 당한 것을 의미한다. 온조가 마한을 공격하여 기준을 몰아낸 것을 秦나라 武王이 韓나라 의양땅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6만여 명의 백성들을 죽인 것에 빗대어 시화한 것이다.

2단락은 장군이었던 주근의 충성담이다. 주근은 홀로 우곡성을 근거로 하여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주근은 “너는 비록 나라를 얻었으나 어찌 믿음이 없는가(汝雖得國何無信)?”라고 죽으면서서까지 온조에게 ‘無信’하다고 호통을 치고 있다. 즉 ‘無信’한 사람이 비록 나라를 세웠더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이다.²³⁾

3단락은 작가인 이복휴의 평가이다. 작자는 주근이 마한의 옛 장군으로서 망한 자신의 조국을 되찾기 위해 기병한 것은 ‘반란’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부식은 이를 ‘叛’이라고 기록한 것²⁴⁾은 잘못된 평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叛’은 자신의 임금을 배반할 때 쓰는 것이고, ‘討’는 옳지 못한 신하를 치는 것이므로, 주근이 백제의 신하가 아니므로 ‘叛’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翟義’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²⁵⁾ 『漢書 翟義傳』에 의하면 翟義는 王莽이 섭정을 할 때 劉信을 세워 천자로 삼고 스스로 大司馬라 칭하며

22) 『春秋左氏傳』, 「僖公 30년조」, “年若舍鄭以爲東道主 行李之往來 供其乏困 君亦無所害.”

23) 『論語』, 「顏淵篇」,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24) 金富軾, 『三國史記』, “三十四年 冬十月. 馬韓舊將周勤據牛谷城叛. 王躬帥兵五千討之 周勤自經 腰斬其尸 并誅其妻子.”

25)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231-232, 「周勤歌」, “按周勤乃馬韓忠臣 而百濟乃馬韓之叛臣也. 金富軾三國史乃書周勤以叛百濟. 百濟以討周勤叛 是叛其主也. 討是討不臣也. 此與翟義李慶業可以較忠節而乃齒之. 衛滿甄萱之流不亦冤乎. 難免史家之累矣.”

起兵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인물이다.

다음은 노론계 인물로 背淸尊明의식으로 정신 무장을 한 김수민의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김수민의 「百濟歌」이다.

沸流居彌鄒忽	비류는 미추홀에 자리를 잡고
溫祚居城衛禮	온조는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네.
兄沒百姓從其弟	형이 죽자 백성들은 동생을 추종했네.
初十濟	처음에는 십제라고 하고
後百濟	뒷날에 백제라고 하였네.
徙都漢山中	한산으로 도읍을 옮기고
後都泗泚泖	훗날 사비의 물가에 도읍하였네.
享國六百七十有八歲 ²⁶⁾	678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였다네.

이 시는 우리나라 영사악부의 형식과 다르게 제목, 原詩로만 구성되어 있고, 史話와 史評이 없다. 시의 내용은 백제의 건국사를 작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반영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졌다.

백제를 건국한 온조가 그의 동북의 형인 비류와 함께 졸본[고구려]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자신은 직산(지금의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정착을 하여 十濟라고 하였고, 형인 비류는 미추홀(지금의 인천)에 자리를 잡았으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하여 비류를 따르던 백성들이 온조에게 귀의하여 나라이름을 百濟라고 고쳤다. 온조는 처음에는 직산에 도읍을 하였으나 비류의 세력을 규합한 후 한산(지금의 서울시 강동구)으로 옮겼고, 훗날 다시 사비(지금의 충남 부여군)로 옮겼다가 678년 동안 享國하다가 망했다.

김수민의 인식은 온조의 백제 건국에 대한 정당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평가가 없이 백제의 건국과정과 도읍의 변경, 享國의 기간 등만을 시화

26)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箕東樂府(金壽民)」, 여강출판사, 1988, pp.377-378, 「百濟歌」.

하고 있다. 그러나 「新羅曲」에서 온조의 백제 건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의 對百濟史에 대한 인식은 앞선 문인인 성호 이익과 이복휴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箕子朝鮮이 衛滿에게 쫓겨 남쪽으로 옮겨와 馬韓을 세웠으니 우리나라의 정통은 檀君에서 箕子로, 이어 馬韓으로 이어지고, 이를 新羅가 계승했다고 하고 있다.”²⁷⁾ 즉 온조의 백제 건국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영사악부」를 쓴 문인들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유가적 사유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학에서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舜임금과 같이 덕이 있는 자만이 나라를 禪位받을 수 있으며, 紂와 같이 悖德한 임금은 혁명을 통해 몰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작가들은 온조가 멸망시킨 마한의 왕인 箕準은 紂와 같이 덕이 없거나 국정을 방치하고 음락에 빠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온조가 기준을 배신하고 도리어 나라를 빼앗은 것은 ‘不仁’이며, 우리나라의 正統을 끊는 행위라고 하여 온조의 백제 건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IV. 백제 멸망에 대한 인식

한국 영사악부에서 백제사 관련 소재는 주로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작품이 가장 많다. 심광세의 「落花巖」 1수, 이익의 「成忠歎」, 「同月輪」, 「落花巖」 등 3수, 이복휴의 「大王浦」, 「月輪行」, 「霜岑嘆」, 「寄生嘆」 등 4수, 이학규의 「自溫臺」, 「落花巖」, 「老龍姑」 등 3수, 임창택의 「成忠囚」

27)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箕東樂府(金壽民)」, 여강출판사, 1988, pp.379-380, 「新羅曲」, “馬韓猶繼承辰弁 詎可論 衛滿自是秦亡卒 乃敢來逐箕子孫 何事東界古基址 不徵於滿又與溫 祇今古都金馬空嘶雲. … 朱蒙建國於卒本扶餘 號爲高句麗 溫祚建都於慰禮城南 稱爲前百濟 二國自是屬國 當以新羅正統繼.”

1수, 오광운의 「釣龍臺」, 「落花巖」 등 2수, 이광사의 「釣龍臺」, 「落花巖」 등 2수, 이영익의 「釣龍臺」, 「落花巖」 등 2수, 김수민의 「望海亭」 1수 등 19수이다.

이 가운데 낙화암을 소재로 한 시는 6수이고, 조룡대와 관련된 시는 3수이며, 망해정과 관련된 시는 3수이고, 성충과 관련된 시는 2수이며, 백제의 멸망의 조짐을 보여주는 시는 2수이고,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시는 1수이며, 夫餘隆과 관련된 시는 1수이다.

본 장에서는 9명의 작가 가운데 심광세 등 몇 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심광세의 백제 멸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심광세의 「落花巖」 시이다.

落花巖截然屹立高幾尋	꺾이지른 낙화암 드높이 우뚝 솟아있고
君王長日此遊衍	군왕은 긴긴날을 이곳에서 실컷 놀았네.
綠鬢紅顏花滿眼	젊고 아름다운 미녀만 눈에 가득
誰知樂極生哀怨	누가 알았겠는가. 즐거움 끝에 슬픔과 원망이 생기는 것을
運去神龍亦不保	운이 다하면 신룡도 또한 보호할 수 없는 것을
城門不守旌旗倒	성문도 지키지 않고 깃발은 뒤집어 지고
蒼黃時事春夢亂	어찌할 수 없이 당황하여 일어난 일 봄꿈처럼 어지럽네.
玉碎珠沈俱草草	옥장식은 부서지고 구슬은 떨어지며 모두 허둥지둥
江妃啼恨水仙泣	강비는 한에 울고 수선도 눈물을 흘렸네.
山河不改乾坤老	산하는 여전한데 건곤만 늙어가고
千年冤魂散紅白	천년의 원혼은 홍백으로 흩어지고
春來依舊傷心色	봄이 왔건만 옛날처럼 상심한 빛만 띄었네.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鮑石出遊卒遇賊	포석정에 나와 유희할 때 졸지에 적을 만나
辱生節死同亡國 ²⁸⁾	살아 욕을 당하고 죽어 절의를 지킨 사람도 망국을 함께하는 것을

이 시의 구성은 제목, 史話, 原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은 2단

28) 沈光世, 『休翁集』 권3,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84, p.352, 「落花巖」.

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락은 1구~9구로 의자왕의 淫樂 장면과 나당 연합군의 外侵으로 인해 연회가 도중에 중단되는 상황을 생중계하듯 묘사하고 있다. 1구~4구는 의자왕이 젊고 아름다운 궁녀들을 거느리고 음락에 빠지고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그래서 그 원망의 소리가 드높아 하늘에까지 알려지고, 하늘이 이를 경고하고자 거북이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조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의자왕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음락에만 몰두하였고, 이에 天命이 다한 백제의 수호신인 신룡도 백제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5~9구는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에 쳐들어와서 연회장을 덮치는 장면이다. 군신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궁녀들은 허둥대며 온갖 머리장식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있다. 8구의 ‘江妃啼恨水仙泣’는 두보의 「桃竹杖引贈章留后」시²⁹⁾를 용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江妃’는 ‘삼천궁녀’를 의미하고, ‘水仙’은 ‘성충’을 의미한다.

시의 2단락은 10구~15구로 작자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 부여의 낙화암 모습이다. 부여의 山河는 백제시대나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나 변함이 없지만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백제시대는 까마득한 천년 전의 일이 되었다. 그런데도 작자 자신이 부여에서 느끼는 감정은 패망한 나라의 도움지였다는 인식이 앞서서인지 모든 것이 수심에 차 보인다. 그래서 작자는 역사는 같은 일이 반복이 되므로 이를 경계를 삼을 것을 주문한다. 백제의 패망은 역대 왕들이 자온대 등을 찾아 황음무도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신라도 이를 거울삼지 않고 포석정에서 流觴曲水を 즐기다가 결국 망했다는 것이다.

심광세는 백제의 멸망이 원인이 의자왕의 황음무도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여 패망한 나라의 마지막 왕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다. 그리고 의자왕의 음락에 동참한 문무백관과 꽃다운 나이에 낙화암에서 산화한 삼천궁녀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성호 이익의 백제 멸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29) 杜甫, 『두시경전』, 「桃竹杖引贈章留后」, “... 斬根削皮如紫玉 江妃水仙惜不得.”

이익의 「落花巖」 시이다.

巖上花開	바위 위에 꽃이 피니
正好鉛粉紅白佳娛遊	붉고 희게 단장한 꽃 즐기고 놀기에 참 좋았네.
巖上花巖下落	바위 위에 핀 꽃이 바위 아래로 떨어지니
綺羅飄散隨西流	비단자락이 바람에 흩어져 서쪽으로 흘러갔네.
花開花落巖不知	꽃이 피든 꽃이 지든 바위는 알 리 없고
國破君亡物猶留	나라 망하고 임금 없어도 만물은 그대로이네.
聞耳絃歌亂眼舞	귀를 울린 음악 소리와 눈을 어지럽힌 춤사위에
不知疆外千貔與萬貅	국경 밖에 수천수만 맹수 있는 줄을 몰랐던 것.
荒淫不戒有如此	황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게 되니
請看白馬江波萬古咽不休 ³⁰⁾	보시게나. 백마강 물이 만고에 쉬지 않고 오염하 고 있음을

이 시는 제목, 史話, 原詩, 史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은 2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락은 1구~5구로 작가가 자신의 당대 시점에서 바라본 낙화암의 모습이다. 화자는 낙화암 위의 붉고 희게 핀 꽃이 절벽 아래 백마강 강물위에 떨어져 흘러가는 것을 보고 수심에 젖는다. 그러나 낙화암은 꽃이 피고 지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없어도 여전히 존재한다. 2구와 3구의 “正好鉛粉紅白佳娛遊, 巖上花巖下落”은 重義的으로 읽힌다. 2구는 의자왕이 3천 궁녀와 함께 낙화암에서 음락에 빠진 장면이고, 3구는 나당 연합군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자 3천 궁녀가 낙화암 절벽에서 강으로 투신 자결하는 장면으로도 이해된다.

2단락은 의자왕이 황음에 빠져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략하는 것을 모르는 상황의 회상과 함께 작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작가는 백제가 망한 것은 의자왕이 황음에 빠져서 제대로 국정을 돌보지 않아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렸으며, 나당연합군의 외침을 당해서 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익은 의자왕이 荒淫에 빠져서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

30) 李瀼, 『星湖全集』 권7,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198, p.173, 「落花巖」.

며, 나당연합군의 외침을 당하여 멸망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백제의 패망을 의자왕에게 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어 오광운의 백제 멸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落花巖」 시이다.

唐兵來羅兵來	당나라 군대가, 신라 군대가 쳐들어왔다네.
妾在深宮那得知	소첩이 규중 궁궐에 있었으니 어찌 알겠어요.
文臣足武臣足	문신도 많고 무신도 많은데
傾國傾城我能爲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지요.
爲綠珠爲息媯	녹주가 되고 식규가 되며
其死其生妾知之	그 죽고 그 사는 것을 소첩은 알지요.
年年花落東流水	해마다 꽃이 떨어져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猶似佳人墮巖時 ³¹⁾	마치 당시에 가인들이 떨어지는 것 같구나.

이 시는 제목, 史話, 原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은 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락은 1구~6구로 낙화암에서 투신 자결한 3천 궁녀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뉘드리하는 장면이다. 즉 그녀가 당시에 직접 경험한 것을 제3자에게 하소연하듯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화하여 사실성과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화자는 나당 연합군이 부여의 사비성을 공격하여 왔지만, 구중궁궐에 사는 궁녀로서 나당연합군이 쳐들어 온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그렇지만 자신은 국정을 담당하는 일은 문무백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임금이 마음을 빼앗기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綠珠’³²⁾도 되고, ‘息媯’³³⁾도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화자는 궁녀라는 신분은 자신이 섬겼

31) 吳光運, 『藥山漫稿』 권3,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210, p.432, 「落花巖」.

32) ‘綠珠’는 西晉 때 石崇의 애첩으로 아름답고 요염했으며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한다. 趙나라 王인 司馬倫이 집권했을 때 녹주를 원했지만 석숭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화가 난 조왕은 석숭을 淮南王[司馬允]과 한 패라고 모함하여 체포하려 오자 녹주는 누대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던 왕을 따라 운명을 함께 하여 자결하던가, 할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면 평생 죄인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공녀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2단락은 7구~8구로 작자가 봄날 낙화암을 바라다 본 풍경이다. 작가는 낙화암은 3천 공녀가 산화한 이후 해마다 봄이 오면 꽃잎이 백마강 떨어져 동으로 흘러간다고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백마강은 동에서 서로 부소산의 북쪽을 감싸 흐르고, 다시 남동쪽으로 흐른다. 그런데도 작가가 사실과 다르게 ‘동으로 흘러간다.’고 한 것은 ‘역사는 반드시 正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이다. 즉 군왕이 미인에 빠지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미인도 함께 죽게 됨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시에는 낙화암의 경관이나 의자왕의 황음무도에 관한 내용은 언급이 전혀 없고, 공녀 한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왕들이 ‘傾國之色’의 미녀를 사랑하게 되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공녀도 결국 함께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오광운은 백제의 멸망의 책임은 의자왕에게 전적으로 있으며, 음란을 경계하는 것이 임금의 요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학규의 백제 멸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이학규의 「自溫臺」 시이다.

王何去泗泚隈	왕이시여 어찌하여 사비의 물가에 가시나이까?
王何在自溫臺	왕이시여 어찌하여 자온대에 계시옵니까?
北浦口琴聲廻	북쪽 포구에서 거문고소리 되돌아오고
半月城月影來	반월성에 달그림자 비춰오네.
紅氍毹莫捲推	붉은색 담요를 말아 옮기지 말라
葳蕤鏤莫牽開	금실로 맺은 것을 뽑아서 펴 보지 마세요.
晨霜冽鴈流	새벽 서리에 찬 기러기 울음 흐르고

33) 息嬀는 春秋시대 陳나라 여인으로 息나라 임금에게 시집갔었는데, 楚文王이 息나라를 멸망시킨 후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두 아들을 낳았으나, 평생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그녀는 “나는 부인으로서 두 남편을 섬겼으니, 비록 죽지는 못하였으나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哀王既醉續進杯³⁴⁾ 애왕은 이미 취하여 끊임없이 잔을 올리라 하네.

이 시는 제목, 史話, 原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은 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1단락은 작자 자신이 관찰자 시점에서 백제시대로 돌아가 바라본 모습을 시화하고 있다. 시의 1구~4구는 백제의 역대 왕들이 사비성 서쪽에 있는 자온대(지금의 충남 부여군 규암면)라는 넓은 바위를 遊息의 장소로 삼아 날마다 가무를 즐기는 장면이다. 자온대의 遊息에는 문무백관은 물론 수많은 궁녀들도 동참하여 밤새도록 향락을 즐기느라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시의 5구와 6구의 “紅氍毹莫捲推, 葳蕤鑱莫牽開”는 임금을 도와서 국정을 보좌할 재상을 뽑는 것을 묘사한 장면이다. 백제의 재상 선출은賢能한 인물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운수에 맡겼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사비성 북쪽에 천정대(일명 정사암)라는 바위가 있는데, 국가에서 장래 재상을 선출할 때에 후보자, 3~4인의 이름을 쓴 후 밀봉하여 바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뜯어보면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져 있어 그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왕권이 취약하여 여러 귀족세력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다스린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백제는 군신회의 이외에도 왕족뿐만 아니라 왕비족, 史氏 등 유력 귀족들의 연합체인 좌평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여 국정을 이끌었다.

또한 백제는 왕권을 가지고 여러 차례 왕족들 간에 왕권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즉 사반왕계열과 고이왕 계열의 왕권다툼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왕권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귀족들 간의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국정을 이끌었다. 哀王은 『사기』에 의하면, “周나라 29대 왕으로 BC 441년 아버지 정정왕이 죽은 뒤에 왕위에 올랐으나 석 달 만에 동생인 叔襲에게 살해되었고, 숙습은 제30대 思王으로 즉위했지만, 그도 5개월 뒤에 동생인 考王 嵬에게 죽임을 당했다.”³⁵⁾고 한다.

34) 李學遠, 『洛下生集』 권17,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290, p.521, 「自溫臺」.

35) 『사기』, 「周本紀」, “二十八年 定王崩 長子去疾立 是爲哀王. 哀王立三月 弟叔襲

이학규는 백제 멸망은 역대 임금들의 황음무도와 귀족들 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인한 인재 등용의 실패, 여기에 더하여 잦은 왕권의 다툼이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론계 인물인 김수민의 백제 멸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김수민의 「望海亭」 시이다.

可憐大王浦	가련하다. 대왕포여
鼓瑟自歌名花明	비파타고 노래하니, 이름은 화명이다.
淒涼望海亭	치량하다. 망해정이여
日游淫樂亡兆萌	날마다 음락을 빠졌으니, 망조가 싹틔네.
鬼呼宮中百濟亡中百濟亡	궁 안에서는 백제가 망한다는 귀신소리 들리고
龜背有文興亡評	거북의 등위엔 흥망을 평한 점괘가 있구나.
新羅如月新	신라는 초승달과 같고
百濟同月盈	백제는 보름달과 같다고 하네.
盈則虧新則盈	차면 이지러지고, 새로 뜨면 차는 것이니
盈虧有數神已呈	차고 이지러짐의 운수를 신이 이미 드러냈으니
何不用成忠興首言	어찌 성충과 홍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兵不可入白江軍不過炭峴程	당군은 백강에, 신라군은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라 했네.
羅將金庾信	신라의 장군 김유신과
唐將蘇定方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白馬釣龍來陷城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아 사비성을 함락시키니
落花巖古空留名	낙화암은 예로부터 헛된 이름만 남겨놓고
千古黃山下	천년 세월 황산벌 발치에는
啓伯殺身仁獨成 ³⁶⁾	홀로 계백장군만이 살신성인을 이루었도다.

이 시는 제목과 原詩로만 구성되어 있고, 시의 내용은 3단락으로 구성

殺哀王而自立 是爲思王. 思王立五月 少弟嵬攻殺思王而自立 是爲考王. 此三王皆定王之子.”

36)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箕東樂府(金壽民)』, 여강출판사, 1988, pp.380-381, 「望海亭」.

되어 있다. 1단락은 대왕포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불리게 된 이유이다. 작가는 의자왕이 날마다 문무백관과 궁녀들을 거느리고 대왕포에 나아가淫樂를 즐겼으며, 이로 인해 백제가 망조가 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2단락은 백제가 망할 여러 조짐에 대한 예시이다. 기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흰여우가 궁궐에 들어오고, 사비의 샘물에 붉은 핏물이 들었으며, 땅을 밟는데 거북이 등에 ‘百濟同月輪新羅如月新’이라고 쓰여 있는 등 여러 조짐을 나열하고 있다.³⁷⁾ 이는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우물과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것은 성충과 같은 충신과 수없이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처형당하여, 이미 민심이 이반되었음을 암시한다.³⁸⁾

시의 3단락은 백제의 멸망과 낙화암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다. 성충과 홍수가 ‘당병은 백강에 들이지 말고, 신라군은 탄현을 넘게 하지 말라’는 간언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천명을 다한 백제의 국운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백제의 호국 龍도 소정방에 의해 속절없이 낚이고 말았다. 여기에서 ‘龍’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자왕이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 당나라의 소정방과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나라가 망하자 3천 궁녀가 낙화암에서 투신 자결하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사비 물가에는 부질없이 낙화암이라는 이름만 남겼다고 하고 있다.

김수민은 낙화암에 대한 경치나 유래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백제 의자왕의 황음무도와 정치의 패정에 따른 하늘의 예시, 소정방과 김유신의 백제 함락 등만을 서술하고 있다. 작자는 이를 통해 낙화암에 대한 경치나 유래의 설명보다 낙화암이라고 왜 불렸는지를 부각시키고

37) 『三國史記』, 「百濟本紀」, 「의자왕 19년조」, “十九年 春二月 衆狐入宮中 一白狐坐上佐平書案. 夏四月 太子宮雌鷄與小雀交. … 九月 宮中槐樹鳴麗人哭聲 夜鬼哭於宮南路. 「의자왕 20년조」, 春二月 王都井水血色. 西海濱小魚出死 百性食之不能盡 泗泚河水亦如血色.”

38) 이동재, 「조선초기 백제회고시 연구」, 『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문학회, 2012, p.109 참조.

있다. 그리하여 의자왕의 패정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한국 영사악부를 지은 문인들은 이학규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백제 멸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자왕에게 묻고 있다. 이들은 백제가 망한 것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황음무도가 그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학규는 백제 멸망의 책임은 역대 임금들의 황음무도와 귀족들 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인한 인재 등용의 실패, 여기에 더하여 잦은 왕권의 다툼이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V. 백제 인물에 대한 인식

백제시대의 인물 가운데 후대 史書에 기록된 인물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入傳된 인물은 黑齒常之, 階伯, 向德, 都彌 등 4인에 불과하고 成忠과 興首, 道琛 등은 本紀의 내용 가운데 거론된 인물이다. 이후 저작된 다른 史書에도 『삼국사기』의 기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의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영사악부에 시화된 인물은 도미부인, 성충, 복신, 扶餘隆 등 4인에 불과하고, 시에 함께 언급된 인물은 계백장군과 홍수, 도침 등이 있다.

영사악부에 수록된 시를 살펴보면, 都彌夫人을 소재로 한 시는 심광세의 「再請妻」와 이복휴의 「都彌妻」, 김수민의 「都彌妻」 등 3수이고, 성충을 소재로 한 시는 이익의 「成忠歎」과 임창택의 「成忠囚」 등 2수이며, 福信을 소재로 한 시는 「岑霜歎」 1수가 있고, 扶餘隆을 소재로 한 시는 「寄生嘆」 1수가 있다.

본장에서는 백제사 인물 가운데 도미부인, 성충, 도침, 부여융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도미부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심광세의 「再請妻」이다.

前請飾婢子 앞선 청엔 여자종을 꾸며 보내고
 後請有月事 뒤의 청은 달거리가 있다고 핑계를 댔네.
 但怒今日欺 다만 오늘 속은 것만 화를 내고
 不念後日嗤 뒷날 비웃음거리가 됨을 생각하지 못했네.
 平生不二心 평생 두 마음을 먹지 않았으니
 耿耿留至今³⁹⁾ 지금도 반짝반짝 그 이름이 남아있네.

이 시는 우리나라 해동악부의 백제사 인물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 도미부인의 정절을 褒揚하기 위해 지은 시이다. 작자는 시의 제목인 「再請妻」 뒤에 ‘流芳遺臭’라고 夾註를 하여 도미부인의 정절이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시는 제목, 史話, 原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은 3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단락은 1구와 2구로 정절을 지키려는 도미부인과 이를 빼앗으려는 蓋婁王의 행위에 대한 상황묘사이다. 史話의 기록과 같이 개루왕이 도미부인의 정절을 빼앗고자 사람을 보내 수청을 들기를 요구했다. 이에 도미부인은 계집종을 분장시켜 들여보내 상황을 모면하였고, 두 번째에는 月事를 핑계로 정절을 빼앗기는 상황을 모면하는 장면이다.⁴⁰⁾

2단락은 개로왕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다. 개로왕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의 정절을 빼앗은 행위는 훗날 두고두고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하고 있다.

3단락은 5구와 6구로 도미부인에 대한 정절을 褒揚하고 있다. 작가는

39) 沈光世, 『休翁集』,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84, p.349, 「再請妻」.

40) 沈光世, 『休翁集』,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84, p.349, 「再請妻」, “百濟蓋婁王聞都彌妻之美 召都彌語曰 婦人之德貞潔爲先 然在幽闇無人之地 誘以巧言 能不動心者鮮矣. 對曰 人情不可測 若臣之妻 雖死不易者也. 王留都彌 使近臣詐爲王抵其家 語妻曰 已與都彌博賭而勝 汝當從命云. 仍欲私之 妻請更衣 註飾一婢子薦之. 王後知見欺大怒 誣都彌以罪 矐其兩目 置小船泛之河 更引其妻欲亂之. 妻曰 今則良人已逝 妾身不能自保 敢爲王辭 但今有月事 請俟他日 王從之. 妻逃之江口 忽遇行船至泊泉島 其夫在此 遂同奔高句麗.”

도미부인이 한 사내의 지어미로써 절대 권력을 가진 개루왕의 유혹과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어미로서 정절을 굽히지 않고 죽은 것을 포양하고 있다. 이는 작가 추구하는 여성상을 도미부인이 보여준 것을 칭찬하고 당대의 사회에서도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의 발로이다.

반면 이복휴의 「도미처」는 그 구성이 제목 - 史話 - 原詩 - 史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화의 내용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고, 시는 도미부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史話의 내용을 시로 반복하고 있다. 사평에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복휴는 도미부인의 정절을 포양하지 않고 개루왕의 虐政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¹⁾ 그리고 김수민의 「도미처」는 史話가 없이 시로만 구성이 되어있다. 김수민의 「도미처」는 화자를 3인칭 관찰자로 하여 삼국사기의 기록된 내용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기술하고 끝에 “君不見 秋江江上蓮, 守紅死心靡忒”이라고 하여, 도미부인의 貞節을 포양하고 있다.⁴²⁾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광세, 이복휴, 김수민은 도미부인이 정절을 지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 사회에 정절을 지키는 婦道를 널리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성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성호 이익이 지은 「成忠歎」이다.

41)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294-295, 「都彌妻」, “蓋婁王 不念伉儷之義 必欲奪民妻 而充其慾. 宮中自多美婦人 而夜行民家 是豈君人者之事乎. 國君而讐匹夫 尙謂不可. 況奪人妻而行強盜之事乎. 其不能保其國 而身罹凶鋒者 固有以也.”

42)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箕東樂府(金壽民)」, 여강출판사, 1988, pp.378-379, 「都彌妻」, “都彌妻 顏如玉. 王召都彌 人情幽暗心易惑. 對曰人情不可測 臣妾雖死心不易. 王不信 詐遣近臣代着袞衣服. 來諭都彌妻 博賭負之當易色. 都彌妻跪而告 當更衣敢當夕. 註飾一婢子 薦枕身即匿. 大怒見其誣 執都彌囉兩. 縛置小船浮海曲 欲亂都彌妻 妻告良人已不淑且有月事心不美 願得他日卜 日黃昏以爲約. 潛逃江口泛栢舟 滔天大洋將安泊. 泊泉島上忽遇夫 同心百結奔高句麗國. 君不見秋江江上蓮 守紅死心靡忒.”

有百濟必成忠生	백제에 반드시 성충이 태어난 것은
天意似若非偶爾	하늘의 뜻이 우연이 아니었으리
有成忠猶百濟亡	성충이 있는데도 백제가 망하였으니
刺口反逆君王耳	간언이 도리어 군왕의 귀를 거스른 것이네.
忠臣死留血化碧	충신이 죽어 남긴 피가 변하여 벽옥이 되고
冤氣夜騰鄴城獄	원기는 밤에 뛰어 풍성옥 하늘에 올랐네
東門眼光燭後來	동문의 눈알 광채가 뒷일을 비추었으니
興首將軍果畫策	홍수 장군이 과연 계책을 내었다네.
金宮方信月長滿	금궁에서는 바야흐로 만월을 믿고 있었는데
白江已道樓船過	백강에는 이미 누선이 지나갔다고 말하였네.
溫王赫業入牽羊	온조왕의 빛나는 업적이 양 끄는 일이 되어
溺人掩面其奈何	몰로 뛰어들면서 얼굴을 가렸으나 어이하리.
自古國亡必先殺諫臣	예로부터 나라가 망할 때엔 반드시 충신을 먼저 죽였으니
籠雞網魚徒興嗟 ⁴³⁾	어리의 닭과 그물 속 고기라니 그저 허를 찰 뿐이네

이 시는 제목, 史話, 原詩로만 구성되어 있고 史評은 없다. 시의 내용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락에 작가의 평가가 있다.

1단락은 1구~8구로 성충에 대한 褒揚이다. 작자는 백제에 성충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작자는 성충이 간언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백제가 망하였으므로 성충이 만고 충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사에 있어서도 伍子胥와 荊軻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4구의 “刺口反逆君王耳”는 『장자』 「外物」 편에 “군주는 자기의 신하가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지만, 충성스러운 신하가 반드시 신임을 받는 것은 아니다.”⁴⁴⁾라는 것으로, 성충의 충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5구의 “忠臣死留血化碧”은 “荊軻가 참소를 당해 추방되어 蜀으로 돌아가서 죽었는데 촉 사람들이 그 피를 담아 보관하니 3년 만에 변하여 碧玉이 되었다.”⁴⁵⁾고 한

43) 李瀼, 『星湖全集』 권7,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 198, p.172, 「成忠歎」.

44) 『莊子』, 「外物」, “人主莫不欲其臣之忠 而忠未必信.”

45) 『莊子』, 「外物」, “荊軻死於蜀 藏其血 三年而化爲碧.”

말로 충신의 억울한 죽음, 즉 성충의 죽음을 의미한다. 6구의 “冤氣夜騰 酈城獄”는 『晉書』 「張華列傳」에 의하면, “풍성은 용천과 태아라는 보검이 묻혀있는 곳이어서 항상 붉은 색 기운을 띄었다. 훗날 이를 파내자 붉은 색 기운이 사라졌다”고 한다.⁴⁶⁾ 이는 성충이 獄中에서 죽었기 때문에 풍성옥이라고 한 것이다. 7구의 “東門眼光燭後來”는 伍子胥가 吳나라 夫差에게 忠諫했다가 도리어 그에게 모함을 받아 자결하였는데,⁴⁷⁾ 이는 성충의 충간은 오자서의 충간과 같다는 것이다.

8구와 9구의 “金宮方信月長滿, 白江已道樓船過”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 20년에 땅에서 나온 거북이 등에 ‘百濟同月輪新羅如月新’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의자왕은 일관이 ‘백제가 만월처럼 흥해진다.’고 풀이한 것을 그대로 믿고 황음무도한 행위를 일삼으며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좌평 興首가 “당나라 병사들이 白江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계책을 무시하다가 결국 당나라 병선이 이미 백강을 통과하여 사비성을 공략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10구와 11구의 “溫王赫業入牽羊, 溺人掩面其奈何”는 『사기』에 “楚나라 군대가 鄭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고 皇門으로 들어가자, 鄭나라 임금인 鄭伯이 항복의 표시로 肉袒를 하고 양을 끌고 나와서 초나라 군주를 맞이하였다.”⁴⁸⁾고 한 것을 용사하여 의자왕이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세운 나라를 잃고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2구의 ‘溺人’은 낙화암에서 나라의 패망과 함께 산화한 삼천궁녀를 말한다.

시의 3단락은 작가의 평가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충신은 반드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죽게 되며, 충신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
- 46) 『晉書』, 「張華傳」, “晉張華與雷煥登樓仰觀天文. 煥謂斗牛之間頗有異氣. 是寶劍之精. 上徹於天. 地在豫章豐城郡. 於是華補煥爲豐城令. 煥到縣. 掘獄屋基. 入地四丈餘. 得一石函. 光氣非常. 中有雙劍. 一曰龍泉. 一曰太阿. 其夕. 牛斗間氣不復見.”
- 47) 『사기』, 「伍子胥列傳」, “吳越爭霸. 吳王夫差不聽伍子胥的多次勸諫. 置大敵當前. 於不顧. 大舉北伐齊國. 並聽信讒言. 賜子胥死. 子胥死前說. 懸吾目於東門. 以見越之入. 吳之亡也.”
- 48) 『사기』, 「楚世家」, “十七年春. 楚莊王圍鄭. 三月克之. 入自皇門. 鄭伯肉袒牽羊以逆.”

것이다. 그런데도 역대의 망국의 왕들은 어리석게도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어리 속의 닭, 그물 속의 물고기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고 평가하였다. 기실 의자왕도 결국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靑衣를 입고 신하의 예를 갖추었으며, 당나라에 끌려가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한 많은 생을 마쳤다.

이처럼 이익은 성충을 만고의 충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의자왕이 성충의 간언을 듣지 않아서 도성이 함락된 이후에 뒤늦은 후회와 임금이 충언하는 자신을 별주어 귀양을 보냈지만 도리어 죽어가면서도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성충의 義烈의 모습을 褒揚하고 있다.

다음은 임창택의 성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임창택의 「成忠囚」 시이다.

願君剖臣心	원하노니 임금이시여 저의 심장을 가르시고
毋剖百姓心	백성들의 심장을 가르지 마소서.
願君射臣胸	원하노니 임금이시여 저의 가슴에 쏘시고
無射羣臣胸	물 신하들의 가슴에는 쏘지 마소서.
不怨臣言君莫用	저의 말을 임금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은 원망하지 않으나
但恐臣言不幸中	다만 신의 말이 불행하게도 들어맞을까 두렵습니다.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成忠已死興首竄	성충은 이미 죽고 흥수도 귀양을 간 것을
落花巖上何及歎 ⁴⁹⁾	낙화암 위에서 어찌 한탄소리가 이르지 않겠는가?

이 시는 제목과 原詩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은 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史話의 내용은 문집을 판각할 때 補錄한 것이기 때문에 작가인 임창택의 인식이 아닐 수도 있다. 보록을 보면, “의자왕이 황음 무도하자 성충이 극간하였고, 왕이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⁵⁰⁾라

49) 林昌澤, 『崧岳集』 권1,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속) 202, p.505, 「成忠囚」.

50) 林昌澤, 『崧岳集』 권1, 「海東樂府」, 한국문집총간(속) 202, p.505, 「成忠囚」, “百濟義慈王荒淫無度.成忠極諫 王怒囚之.”

고 되어 있다.

시의 1단락은 작자가 주인공인 성충이 되어 임금에게 극간을 하는 모습으로 시화했다. 성충은 의자왕에게 자신의 심장을 갈라 죽이고, 가슴을 찢 죽여도 좋으나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신라군은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당나라군은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하라는 자신의 간언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

시의 2단락은 작가인 임창택의 평가이다. 작가는 자신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君不見’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3자에게 되묻듯이 하여 백제가 망한 것은 성충과 홍수와 같은 충신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갖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성충을 포양하는 내용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나 주된 내용은 성충을 褒揚하고 후대에 감계를 삼고 있다.

다음은 이복휴의 백제사 인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이복휴의 「霜岑歎」 시이다.

周留城殺雲迷	주류성에서 서로 살생을 하니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熊津城月暉圍	웅진성을 달빛을 따라 포위를 하네.
兩將同心鐵作陣	두 장군이 한 마음이 되니 철옹성이 되고
唐羅二軍支離歸	나당연합군이 지리멸렬하여 돌아가네.
葛嶺秋風勝鼓飛	갈령엔 가을바람에 승전고가 높이 날고
戮力同守未必恢	죽을힘을 다해 지키니 반드시 회복되지 않으랴
如何此心變中途	어찌하여 이 마음 중도에 변했는가?
強寇未平自相屠	강한 적을 평정시키기 전에 서로 친하게 여겼네.
吾殺人人殺吾	나는 너를 죽이고, 너는 나를 죽이며
窟室何心詐病臥	무슨 마음을 먹었기에 굴실에서 병을 사칭하며 누워있나
阿豐已鑑前領車	풍은 이미 과거에 도침을 죽인 것을 거울삼았네.
請看白江紅波動	보아라. 백마강에 붉은 물결이 요동치고
脫身王子中林浦 ⁵¹⁾	탈출한 왕자가 숲속에서 체포된 것을

51)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이 시는 백제부흥운동을 일으킨 ‘福信⁵²⁾의 탄식’을 읊은 시이다. 시의 구성은 제목, 史話, 原詩, 史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은 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1구는 복신이 임존성에서 동지인 도침을 죽인 것을 말하고, 2구는 복신과 道琛이 신명의 도움으로 웅진성을 탈환하기 위해 포위하는 모습이다. 복신과 도침이 서로 합심한 초기의 백제부흥운동은 혁혁한 공훈을 세워서 사비성을 공략하고, 甕山城·沙井城·眞峴城 등을 탈환하여 金欽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을 葛嶺 밖으로 퇴각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복신과 도침은 서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투다가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스스로 霜岑將軍이라고 칭하였다.⁵³⁾ 이후 권력을 장악한 복신은 임금으로 추대한 부여풍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복신은 窟室에 누워서 부여풍이 문병을 오기를 기다

pp.354-355, 「霜岑嘆」.

- 52) 福信(? ~663)은 백제 무왕의 조카이자 동시에 의자왕의 사촌 동생이다.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泗泚城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신라에 항복하자, 道琛과 함께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왕자 扶餘豐을 왕으로 추대하고 周留城(현재의 충남 서천군 한산면)을 근거로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서북부 지방 백제 유민들의 호응을 얻어 한때 사비성까지 쳐들어가는 성과를 얻었다. 당나라 장수 劉仁願이 지키는 사비성을 포위하자, 당나라에서는 劉仁軌를 급히 파견해 구원하게 하자 任存城으로 퇴진하였다. 그 후 복신을 주축으로 한 백제 부흥군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甕山城·沙井城·眞峴城 등을 탈환하고 金欽이 이끄는 신라군을 葛嶺(지금의 충청북도 보은지방)으로 퇴각시켰다. 이 후 복신은 도침을 죽이고 병권을 장악하였으며, 자기 세력을 믿고 장차 부여 풍까지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거짓 병을 핑계로 누워 있다가, 부여 풍이 문병 오는 것을 기다려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챈 부여풍이 먼저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복신을 죽였다.
- 53)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354-355, 「霜岑嘆」, “百濟旣亡 武王從子福信與浮屠道琛 據周留城 迎王子扶餘豐立之 西北部皆應. 遂圍劉仁願於熊津城 唐使劉仁軌便道發新羅兵以救之. 仁軌喜曰 天將富貴此翁矣. 請唐曆而行曰 此行當掃平東國 頒大唐正朔矣. 福信立兩柵於熊津江口以拒之. 唐羅兩兵挾擊濟兵 濟兵阻水橋挾戰 死者萬餘. 福信乃釋熊津之圍退任存城. 羅兵以糧盡而歸. 於是 道琛自稱領車將軍 福信自稱霜岑將軍 兵勢益張 邀擊羅兵於葛嶺大敗之 新羅不敢復出已. 而福信謀殺道琛并其衆. 仁軌遂與仁願 合軍休息三月 大破福信於熊津 拔大江沙井等柵已 而扶餘豐殺福信拒 唐劉仁願水陸竝進克周留城. 扶餘豐脫身獨走 不知所終.”

려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부여풍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심복을 시켜서 복신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였으나, 663년 白江口 戰鬪에서 백제부흥군과 일본의 구원군이 나당연합군에게 전멸을 당하자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시의 후반부는 다시 백제가 망할 때의 모습이다. 나당 연합군은 사비성을 공격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살해하여 백마강에는 핏물이 넘치고, 낙화암에선 삼천궁녀가 꽃처럼 산화하였다. 그리고 수도인 사비성을 버리고 웅진성으로 피신한 왕세자 부여융은 결국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

이복휴는 史評에서 군자는 義로써 일을 함께 도모하므로 그 마음이 견고하고, 소인은 이익으로써 일을 도모하므로 그 마음이 취약하다. 范蠡와 文種은 의기투합하여 망한 越나라를 부흥시켰고, 程嬰과 公孫杵臼도 의기로 몽쳐 趙나라를 부흥시켰다. 그러나 복신이 망한 백제를 회복하자고 맹세한 도침을 죽인 것은 사육에 사로잡혀 사직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며, 결국 그 자신도 부여풍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事必歸正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⁵⁴⁾

다음은 이복휴의 「寄生歎」 시이다.

白馬江邊杜宇號	백마강가에는 두견새가 울부짖고
熊津古木思春色	곰나루의 고목들은 봄빛을 그리워하네.
中原大人歌織月	중원의 높은 벼슬아치 초승달을 노래 부르고
一盤鷄血平東國	한 대야의 닭의 피로 동국을 평정했네.

54)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354-355, 「霜岑嘆」, “夫君子以義同事 故其心固. 小人以利同謀 故其心弱. 范蠡文種同心 霸越仗其義也. 程嬰杵臼 一心存趙 亦以義也. 黃叔關張義結兄弟 而踐約同死 亦此義也. 我朝壬辰倭亂 重峯先生與休靜大師同約起兵 而同日殉義於錦山之下 皆其心出於公 故其義長. 小人則不然 睫忽之頃 趨向各殊 彼我之間 形色已露. 故張耳陳餘終成冤家 董卓呂布畢竟屠戮. 此無他公私之別也. 如使扶餘遺種 出於公心 眞以社稷爲重 則有何相害之意哉. 只其私慾蔽之. 獨私之心 先生 故霜岑 殺領車 高豐殺霜岑 而新羅自爲挾彈之. 公子噫夫.”

吾土雖信美	우리 강토는 비록 아름다우나
有仇歸不得	원수가 있어서 돌아갈 수 가 없네.
螳臂豈得車轍捍	사마귀의 어깨로 어찌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나?
病鳥祗驚虛弓射	병든 새는 다만 빈 화살에도 놀라네.
南州父老歌陌花	전라도의 어른들은 두령에서 꽃노래를 부르고
滿目江山只夢歸	두 눈에 가득한 강산은 다만 꿈속에서나 돌아오네.
千乘家國歸何處	천승의 나라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衰草咸陽泣布衣	시든 풀로 뒤덮인 함양에선 포의들이 눈물 흘리네.
箕城不堪居	평양에서는 살 수가 없고
涇水流支離	대동강의 물은 지루하게 흐르네.
齊郊松栢但秋聲	제나라 교외의 송백만 가을 소리를 내고
落花巖水年年悲 ⁵⁵⁾	낙화암 아래 강물은 해마다 슬프게 흘러가네.

이 시는 제목, 史話, 원시, 史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1구와 2구는 작가가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熊津에서 봄날에 느끼는 애수이다. 웅진의 산천은 다른 지역의 산천과 다름없이 봄이 오면 새가 울고 나무들은 싉이 무성해진다. 하지만 웅진의 봄은 두견새가 울고, 곰나루의 고목들이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두견새는 초나라의 망제의 냇이 변하여 된 새로 ‘망국의 恨’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3구와 4구는 백제가 멸망한 후 왕세자인 扶餘隆(615~682)⁵⁶⁾이 신라의 김유신과 665년 웅진에서 백마를 잡아 삼혈하며 화친을 맺는 장면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나라의 힘으로 웅진도독에 임명된 부여융은 신라와 당나라 간의 갈등으로 더 이상 웅진도독을 역임할 수 없어서 다시 당나

55)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356-357, 「寄生嘆」.

56) 부여융은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왕성이 함락될 때 의자왕과 함께 熊津城으로 피신하였다가 항복하여 신라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그해 9월 의자왕과 함께 蘇定方에게 당의 수도인 洛陽으로 끌려갔다. 이듬해 백제의 유민 福信·道琛 등이 일본에 있던 扶餘豐을 옹립하고 周留城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당나라 장군 劉仁軌 등과 水軍을 이끌고 들어와 백마강에서 이들을 무찔렀다. 665년 熊津都督이 되어 백제의 옛 땅을 다스리다가 신라의 抗唐 정책으로 압박을 받다가 676년 당나라에 돌아가 帶方郡王에 봉해지고 洛陽에서 죽었다.

라로 돌아갔다.⁵⁷⁾

부여융은 자신의 힘을 사마귀나 병든 새 정도로 인식하고 감히 신라에 저항하고, 다시 백제를 회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과거의 천승의 백제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자신의 나라였다. 당나라로 되돌아 간 부여융은 함께 끌려온 백성들의 희망이 있었지만 그는 그 희망마저 저버린 한갓 병든 새 신세로 살다가 낙양의 언덕에 묻혔다. 그러니 낙화암엔 여전히 망국의 한을 품은 강물 소리만 처량하게 들릴 뿐이다.

이복휴는 백제의 마지막 태자였던 부여융이 용기가 없고 심약하여 기생충과 같은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작가는 「기생탄」의 史評에서, 少康과 昭王은 목숨을 건 불굴의 노력으로 夏나라와 燕나라를 부흥시켰는데, 부여융은 당나라의 도움으로 백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는데도 신라에 겁을 먹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한 ‘망국의 아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⁵⁸⁾ 즉 이복휴는 부여융이 한 나라의 주군이 될 인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 종묘사직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과 불굴의 의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끝없는 저항정신이 없었고, 단지 一身의 安危만을 생각한 부여융은 기생충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⁵⁹⁾

57)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356-357, 「寄生嘆」, “遺史云 百濟餘衆降叛無常. 唐高宗患之 以義慈王子扶餘隆爲熊津都督 使之歸國 與新羅交平詔. 劉仁軌刑白馬爲盟 辭作金書鐵契藏新羅廟中. 隆畏新羅復歸. 唐儀鳳中 復以帶方郡王遣歸安輯餘燼. 隆畏新羅 終不敢入 寄高句麗十餘年而死.”

58)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海東樂府(李福休)」, 여강출판사, 1988, pp.356-357, 「寄生嘆」, “少康因舊臣靡而興夏 昭王因郭隗而復燕 皆出萬死一生之計也. 扶餘隆既得唐帝之助 則歸國養兵收合餘燼庶乎有成 而恟於新羅之襲殺不得安席 乃爲高句之寓公. 此何異樹虎守而不入吾家乎. 眞亡國之兒耳.”

59) 이복휴의 「寄生嘆」은 부여융의 국가와 백성들에 대한 무한 책임이 없고 단지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한 인물로 평가하여 시의 제목을 ‘기생충의 탄식’으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의 史話에 ‘隆畏新羅 終不敢入 寄高句麗十餘年而死’는 扶餘豐이 백제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고구려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것을 착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箕城不堪居, 淇水流支離”는

이처럼 심광세, 이복휴, 김수민은 도미부인이 정절을 지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 사회에 정절을 지키는 婦道를 널리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익과 임창택은 성충이 의자왕이 충언하는 자신을 벌주어 귀양을 보냈지만 죽어가면서도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성충을 만고의 충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신과 부여융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복휴는 복신이 망한 백제를 회복하자고 함께 맹세한 道琛을 죽인 것은 사육에 사로잡혀 사직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고, 그 자신도 부여풍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事必歸正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부여융은 한 나라의 주군이 될 인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국권회복의 의지와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이 없었고, 단지 일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기생충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VI. 결론

본고는 한국 영사악부에 수록된 백제사 관련 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사관련 시의 내용을 첫째,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 둘째, 백제 패망에 관한 인식, 셋째, 백제사 인물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이들의 對百濟史 인식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된 인간의 자기의식이고, 문학의 효용은 인간의 내재된 도덕성을 발휘하여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와 문학은 오래전부터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왔다.⁶⁰⁾ 조선후기에 지어진 詠史樂府는 ‘海東樂府’, ‘東國

부여융과 관련이 없다.

60) 이철희, 「영사시와 회고시에 대한 시학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p.354.

樂府’, ‘箕東樂府’ 등으로 그 명칭이 다르지만, 모두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그 소재를 취하여 지은 영사시이다. 영사시는 과거의 역사를 소재로 한 시이지만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관적인 정서, 즉 역사관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史書의 기록을 재해석한 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영사악부에 수록된 시 가운데 백제사 관련 시는 38수이고, 고구려 관련 시 41수, 신라와 관련된 시는 313수로 백제사와 관련된 소재는 신라의 것보다 1/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 또한 시의 내용은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한 시가 7수이고, 백제의 패망과 관련된 시는 19수이며, 백제사 관련 인물을 포괄한 시 8수 등이 있다.

한국 영사악부에 백제사 관련 내용이 적은 것은 영사악부를 지은 작가들이 星湖 李瀼과 같은 近畿南人이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실학자가 대부분이었고, 영남을 기반을 둔 문인들로서 백제사와 관련된 전설이나 전승된 문화, 노래 등에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백제사와 관련된 인식은 고려조에 기록된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일연의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차용하여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제 건국에 대한 인식은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시는 沈光世의 「借地恨」, 李瀼의 「借地歎」과 「周勤歌」가 있고, 李福休의 「十濟曲」, 「周勤歌」, 「鴻雁歌」 등 3수가 있으며, 金壽民의 「什濟曲」 1수 등 7수가 있다. 영사악부를 지은 문인들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유가적 사유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학에서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하고 있다. 즉 맹자는 ‘민을 얻으면 이는 곧 천하를 얻는 것’이고, 失德하여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잃게 되면 당연히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나라도 잃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온조가 멸망시킨 마한의 왕인 箕準은 紂와 같이 덕이 없거나 국정을 방치하고 음락에 빠진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조가 마한을 멸망시킨 것은 ‘不仁’

이며, 우리나라의 정통이 마한으로 이어졌으므로, 마한을 멸망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正統을 끊는 것이라고 하여 온조의 백제 건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백제 패망에 관한 인식을 드러낸 시는 19수이다. 이 가운데 낙화암을 소재로 한 시는 6수이고, 조룡대와 관련된 시는 3수이며, 망해정과 관련된 시는 3수이고, 성충과 관련된 시는 2수이며, 백제의 멸망의 조짐을 보여주는 시는 2수이고,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시는 1수이며, 夫餘隆과 관련된 시는 1수이다. 영사악부를 지은 문인들은 이학규를 제외하고 백제 멸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자왕에게 묻고 있다. 이들은 백제가 망한 것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황음무도가 그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학규는 백제 멸망의 책임은 역대 임금들의 황음무도와 귀족들 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인한 인재 등용의 실패, 여기에 더하여 잦은 왕권의 다툼이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백제사 인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시는 8수가 있다. 즉 都彌夫人을 소재로 한 시가 3수이고, 성충을 소재로 한 시는 2수이며, 福信을 소재로 한 시는 「岑霜歎」 1수가 있고, 扶餘隆을 소재로 한 시는 「寄生歎」 1수가 있다. 영사악부의 작가들은 도미부인과 성충에 대해 정절과 충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도미부인이 정절을 지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 사회에 정절을 지키는 婦道를 널리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자왕이 충언하는 자신을 벌주어 귀양을 보냈지만 죽어가면서도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성충을 만고의 충신이라고 평가하여 자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福信과 扶餘隆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들은 복신이 사육에 사로잡혀 道琛을 죽이고, 扶餘豐마저 죽이려다 도리어 죽임을 당한 것은 事必歸正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부여융은 한 나라의 왕세자로서 망한 나라를 되찾겠다는 국권회복의 의지와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이 없었고, 단지 一身의 安逸만을 생각하는

기생층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으로 한국 영사악부의 대백제사 관련 시를 통해 백제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當代 다른 문인들의 대백제사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영사악부를 지은 문인들과의 차별성을 밝히는 것은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東國輿地勝覽』

『三國史記』

『三國遺事』

『論語』

『史記』

『詩經』

『莊子』

『晉書』

『春秋左氏傳』

吳光運, 『藥山漫稿』(한국문집총간 210집)

沈光世, 『休翁集』(한국문집총간 84집)

李 灝, 『星湖全集』(한국문집총간 198집)

_____, 『星湖僿說』(한국문집총간 198집)

李學滄, 『洛下生集』(한국문집총간 290집)

林昌澤, 『崧岳集』(한국문집총간 속202집)

鄭求福 編著, 『海東樂府集成』 2, 여강출판사, 1988.

김영숙, 『한국영사악부연구』, 영산대학교출판부, 1998.

_____, 「李福休의 역사의식과 『海東樂府』의 褒貶樣相」, 『대동한문학』 제15집, 대동한문학회, 2001.

석진주, 「『海東樂府』를 통해 본 李福休의 현실인식」, 『민족문화연구』 제5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신장섭, 「金壽民의 箕東樂府 研究」,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신형식, 『百濟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양중국, 「백제 부흥운동과 웅진도독부의 역사적 의미」, 『백제문화』 제35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6.

오석원, 「유교 역사관의 재구성」, 『人文科學』 제29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 오항녕, 「조선 초기 경연의 『자치통감강목』 강의」, 『한국사상사학』 제9집, 한국사상사학회, 1997.
- _____, 「性理學的 歷史觀의 成立」, 『朝鮮時代史學報』 제9집, 조선시대사학회, 1997.
- 劉若愚 著·李章佑 譯, 『中國詩學』, 명문당, 1994.
- 유혜영, 「회고'의 세 가지 개념에 관한 소고」, 『중국문학이론』 제9집,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7.
- 이동재, 「조선초기 백제회고시 연구」, 『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문학회, 2012.
- _____, 「추장 남효온의 백제회고시 연구」, 『한문고전연구』 제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 _____, 「16세기 문인들의 백제 회고시 연구」, 『한문고전연구』 제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9.
- 이철희, 「영사시와 회고시에 대한 시학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정출현,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과 그 미학적 층위」, 『한국민족문화』 2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 진경환, 「부여회고시의 몇 가지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2.
- 허연구, 「洛下生 李學逵의 海東樂府 研究」,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Baekje History in Korea's Yeongsaakbu**

/ Lee Dong-jae**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Baekje history related poems in Korea's Yeongsaakbu, and then the writers' recognition of Baekje history.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Baekje history related pomes are examined. Yeongsaakbu,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period, is also known differently as Haedongakbu, Donggukakbu, Gidongakbu etc. but contains pomes that reinterpret records in Korean history books.

Of those poems published in Yeongsaakbu, 38 are Baekje history related while 41 Goguryeo history related and 313 Silla history related. Thus, the poems with Baekje history related subject matters are just 1/8 as many as those with Silla history related matters.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themes of the poems, 7 have events related to the foundation of Baekje as their themes, 19 are related to the fall of Baekje, and 8 praise and censure Baekje history related figures.

They thought that Baekje Restoration Movement failed as Bok Sin caused internal quarrels for his individual desires. Also, they criticized Buyeo Yung as a parasite who lacked the will to restore the sovereignty though he was the crown prince but only paid attention to his own comfort.

The reason why Yeongsaakbu has a small amount of Baekje history related contents is that the poets did not have enough knowledge and experiences about folktales, inherited culture, songs etc. related to Baekj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16.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 / leedj@kongju.ac.kr

history. Thus, their Baekje history related recognition is similar to Samguksagi editor Kim Busik's and Samgukyusa writer Ilyeon's in Goreyo.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recognition of Baekje history. First, the poets in Yeongsaakbu revealed negative recognition of Onjo's foundation of Baekje. That is, they thought the fact that Onjo terminated Mahan even though Gijun, the King of Mahan, showed enough mercy to him to give him lands to live harmed the legitimacy of Korea.

Second, the poets in Yeongsaakbu believed that King Euija had full responsibility for the fall of Baekje. However, Lee Hak-gyu recognized that the fall of Baekje is a result from Baeje kings'successive indulgence and immorality, failure to recruit brilliant human resources due to the nobility's mutual quarrels, and frequent struggles for the throne.

Third, the poets in Yeongsaakbu gave a high evaluation to Lady Domi(都彌夫人) for her fidelity and loyalty toward Seong Chung(成忠). This is a manifestation of their will to spread the practice of women's way to keep their fidelity in the society where they themselves lived and to devote themselves to the nation and the king with their loyalty. However, their evaluation of Bok Sin(福信) and Buyeo Yung(扶餘隆) was very negative.

【Key words】 Baekju history, foundation of Baekje, fall of Baekje, Lady Domi, Seong Chung, BokSin, King Euija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9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